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2월 1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2.10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2. 10.(목)	담당부서	세계무역기구과
담당과장	송현주 과장(044-203-5920)	담 당 자	홍기웅 사무관(044-203-5921) 이우진 사무관(044-203-5922)

통상교섭본부장, 다자체제 복원·국제기술표준 선점·국제기구 한국인 진출 확대 위한 제네바 행보 전개

- **WTO 사무총장과 다자체제 복원,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지원방안·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논의**
- **ISO 회장과 인공지능·수소산업 등 첨단기술의 국제기술표준 관련 한국의 주도적 참여를 위한 협의**
- **주요 국제기구 수장들과 한국인 직원 진출 확대 및 통상전문 인력 양성 요청 및 협력방안 논의**

□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**'22.2.9(수)-10(목)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**를 방문하여,

○ **세계무역기구**(WTO), **국제표준화기구**(ISO), **유엔무역개발회의**(UNCTAD) 등의 고위급 인사를 만나 **다자체제 복원** 및 **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의 기여 방안** 등을 논의함

< 세계무역기구(WTO) 사무총장 면담 >

□ 여 본부장은 **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** (Ngozi Okonjo-iweala) **WTO 사무총장**을 만나 **다자체제 복원**, **WTO** 개혁 및 **신통상 의제** 협력 방안, **WTO 사무국 내 한국인 진출 확대** 방안 등을 논의함

○ 4년 만에 개최 예정('21.11.30~12.3)이던 **제12차 WTO 각료회의**(MC-12)가 연기됨에 따라, **다자체제 복원**을 위한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함

- 한편, 응고지 사무총장은 **무역을 통해 성장**한 모범국이자, **아태 지역의 통상 선진국**으로서 **한국**이 **다자체제 복원**을 위해 **적극적인 기여**를 해줄 것을 요청함

- 여 본부장은 특히 **WTO 분쟁해결제도**가 다자무역체제 유지에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*하며, **협상·이행·분쟁해결** 등 WTO의 주요 기능 **개혁**을 위한 논의가 조속히 진전되어야 한다고 언급함

※ 금번 2.8일 WTO 패널이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불합치하다고 판정(우리측 승소)한 것은 WTO 분쟁해결양해(DSU)에 따라 회원국 간 분쟁을 해결하며 다자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임

○ 또한, 양측은 **보건·백신**, **디지털**, **탄소중립·환경** 등 **신통상 의제**와 관련한 협력방안을 논의함

- 여 본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WTO가 어떻게 기여할지를 논의하는 **통상과 보건(Trade and Public Health)** 이슈가 WTO의 **최우선 과제**이며, 한국이 **글로벌 백신 허브**로의 도약을 통해 백신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는 등 팬데믹 대응을 위한 **실용적인 해결책 마련**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함

- 또한,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**디지털 통상** 관련 **新규범 논의를 주도**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, 현재 진행 중인 **WTO 전자상거래 복수국간 협상** 등의 조속한 진전을 통해 **WTO의 규범 정립 기능을 활성화**할 것을 요청함

- **탄소중립·환경** 관련, 여 본부장은 **탄소국경조정제도**(CBAM) 등 개별 국가의 환경 조치가 **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** WTO가 적극 나서 다자적 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, 한국이 높은 수준의 국가탄소감축 목표를 설정(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% 감축)하고 2015년부터 **배출권거래제**(ETS)를 도입해 운영한 경험이 있는 만큼, WTO의 탄소중립·환경 논의에 **적극 기여**하겠다고 밝힘

○ 아울러, 여 본부장은 한국의 **통상강국으로서의 위상** 등을 감안할 때 **WTO 사무국** 내 **한국인 직원 수 확대**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, 한국인 진출 확대를 위한 **WTO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**함

< 국제표준화기구(ISO) 회장 면담 >

□ 한편, 여 본부장과 **프랑케**(Francke) **ISO 회장**과의 면담에서, 양측은 최근 통상정책의 영역이 **국제기술표준** 등 **신기술 규범으로도 확대**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, **디지털, 보건, 탄소중립** 등 신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ISO 간 **긴밀한 협력을 지속**해나가기로 함

○ 여 본부장은 한국이 '21년 기준, ISO에 **자율차·로봇·무인항공기** 등 **61종의 첨단기술분야 국제표준을 제안**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, 향후 **5G, 인공지능, 재생에너지, 수소산업** 등 **첨단기술산업의 국제표준 개발 및 제정**을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힘

○ 또한, 양측은 **신남방·신북방 국가** 등 개도국에의 **표준체계 전수·표준화 경험 공유** 등 국제사회에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함

○ 아울러, 여 본부장은 첨단분야 기술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감안할 때 ISO 등 표준 관련 국제기구에 **한국인 직원 진출이 확대**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, ISO측이 현재 6개국(미, 영, 독, 프, 중, 일)인 **상임이사국 수를 확대하여 한국을 포함하는 방안**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함

< 유엔무역개발회의(UNCTAD) 및 국제무역센터(ITC) 면담 >

□ 여 본부장은 **UNCTAD 및 ITC 사무총장**을 만나 무역·투자를 통한 개도국 역량강화와 **한국의 위상에 부합하는 기여방안을 협의함**

○ 여 본부장은 **그린스판**(Grynspan) **UNCTAD* 사무총장**을 만나 작년 7월 UNCTAD가 **설립 후 최초로 한국을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****한 것을 평가하고,

*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1964년 설립된 UN 산하 정부간기구로 무역 및 개발에 관한 정책 연구, 개도국 대상 기술협력 등을 지원

** 한국은 UNCTAD 설립 후 최초로 그룹A(아시아, 아프리카)에서 그룹B(선진국)로 지위 변경('21.7)

- **무역·투자·통상**을 통한 **한국의 경제발전 경험**을 토대로,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함. 현재 통상교섭본부는 '21~'22년중 UNCTAD와 대표적 신북방 국가인 **우즈베키스탄 WTO 가입 지원 사업**을 진행중에 있음

○ 또한, 여 본부장은 **개도국 소상공인·중소기업**의 **해외 수출** 및 **무역 역량 강화** 등을 위해 설립된 **ITC의** 코크-해밀턴 사무총장과 만나 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함

- 여 본부장은 최근 개도국의 여성 통상인력 양성을 위한 ITC의 노력을 평가하였고, 코크-해밀턴 사무총장은 서아프리카의 여성 통상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의 ODA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명

- 특히, 양측은 **한국의 통상 전문인력 양성**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신설, **한국 정부의 통상 전문인력 파견**을 통한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함

○ 이와 관련하여, 여 본부장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**통상정책을 통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의 경험**이 많은 개도국에게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,

- 향후 한국의 통상정책 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**UNCTAD 및 ITC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**이라고 함

- 아울러 **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UNCTAD, ITC 등의 국제기구에 진출**해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협력하자고 밝힘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이우진 사무관(☎ 044-203-59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